

CGL 통신

발행처 : 일본 중앙보석연구소(www.cgl.co.jp)

발행일 : 2017.05.25. (No.38)

Seoul Jewelry Industry Support Center 탐방기

작성자: 일본 중앙보석연구소 Kitawaki Hiroshi 박사

지난 2017년 2월 1일(수)~3일(금), 한국 서울시에 위치한 서울주얼리지원센터(SJC)를 방문하여 최근 합성다이아몬드의 현황 및 감별기술에 대한 논제를 중심으로 정보교환을 하였습니다. 아래에 그 개요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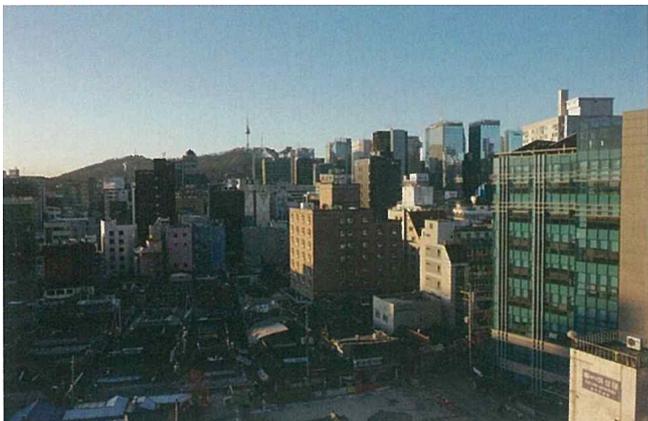
서울시의 심볼이라 할 수 있는 서울남산타워 야경

Seoul Jewelry Industry Support Center (SJC)

서울주얼리지원센터(SJC)는 2015년 6월에 개설된 서울시 주얼리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시설입니다. (<https://www.seouljewelry.or.kr/eng/main/main.do>) SJC는 서울시의 거의 중심부인 종로3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한국주얼리산업의 메카이면서, 제조부터 판매에 이르는 관련 주얼리 기업들이 이 지역에 집적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고궁(경복궁, 창덕궁) 및 종묘(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셔 기리는 사당), 한국의 전통가옥인 한옥 밀집된 지역, 북촌마을이 있어 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 역사적으로 운치가 있는 문화지역입니다. SJC는 종묘 외벽에 근접한 한적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주얼리지원센터 부근 지도



숙박한 호텔에서 보이는 서울시 전경.
멀리 서울타워가 보인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창덕궁 입구.
한복을 차려입은 관광객

이미 개관한 SJC 제1관은, 연구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SJC 연구소, 사무국, 주얼리 라이브러리로 병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50m 남쪽으로는 올해 6월 28일에 개관 예정인 제2관이 현재 건축 중입니다. 제2관에는 공동 작업공간, 체험관, 카페테리아 및 전시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SJC는 서울시로부터 경영을 위탁받은 재단법인 서울주얼리산업진흥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주얼리산업에 필요한 예산이 책정되어 재단에 의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센터 현관 앞에서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직원들과 함께

SJC 제1관의 1층에는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신진기업의 지원, 주얼리페어 및 공예기술대회 주최, 웹드라마 제작 및 주얼리 관련 관광코스 개발 등을 기획합니다. 또한 가공, 교육, 감별 등 전문가 등록을 통한 DB 구축으로 각 기업과 취업자 간의 매칭 등의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주얼리 관련 잡지나 서적 및 연구논문이 보관되어 있으며,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SJC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보석 감별에 사용되는 첨단 분석기기가 구축되어 각종 분석지



서울주얼리지원센터 2층은 일반인들도 주얼리 관련 서적을 관람할 수 있다.

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량의 성분분석에 사용되는 LA-LIBS는 Applied Spectra사의 최신 모델의 기종으로 ICP-MS와도 연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커런덤의 베릴륨 처리여부의 확인 및 금 함금의 정량 등에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으며, 그 성과는 2016년 6월, 일본 보석학회에서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SJC 연구소에서의 분석의뢰는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감별서는 발행하지 않고 분석결과에 대한 제공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자는 소비자가 아닌 감별기관이나 도·소매업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외에 산업모니터링(귀금속 함량 및 다이아몬드 감정등급 현황 파악), 각종 정보세미나의 개최, 외국 전문가 초빙 및 기술교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미에 기술될 다이아몬드 단체인증제도의 실질적인 지원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SJC연구소에 설치되어 있는 ICPMS(좌)와 LA-LIBS(우)



현재 건축 중인 SJC 제2관.
한국 전통적인 목조건축의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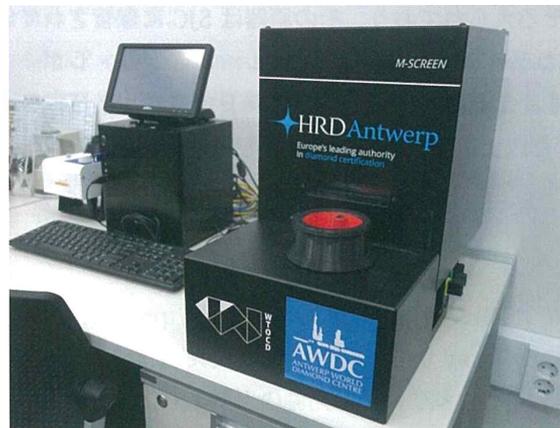
SJC연구소의 다이아몬드 감별기기

한국 주얼리산업에 있어서도 최근 1-2년동안 멜레크기의 합성다이아몬드 유입이 심각해져 그 대책이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SJC 연구소에서는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http://w-jewel.or.kr/index.php>)으로부터 DTC사의 DiamondSure™, DiamondPlus™, DiamondView™, PhosView™, GLIS-3000 등 다이아몬드 감별기기를 기증 받아 합성 다이아몬드 감별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더불어 GIA로부터 DiamondCheck, 앤트워프 AWDC로부터 멜레다이아몬드 자동선별기인 M-screen plus를 기증 받았으며, CGL에서도 CGL-Diamond Kensa 2대를 기증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장비의 모든 설치는 2017년 1월에 종료되었고, 2월부터 다이아몬드의 분석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의뢰된 멜레 다이아몬드 파슬의 나석 중, 최대 60%가 합성인 것도 있어 SJC 연구소가 맡게 된 다이아몬드 분석지원은 한국 주얼리산업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DTC사의 다이아몬드 감별장비.
좌측부터 PhosView™, DiamondPlus™,
DiamondSure™, DiamondView™



AWDC로부터 기증된 M-screen plus



FTIR기능으로 다이아몬드의 타입을 선별하는 GIA의 DiamondCheck™



인광으로 무색 합성다이아몬드를 선별하는 GLIS-3000

※(재)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은 (주)리골드의 창업자로서 50년 이상, 한국 주얼리산업에 종사해 온 이재호 회장이 200억원의 사재를 들여 2009년에 설립한 공익법인. 한국 주얼리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산하에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를 두고 정기적인 업계 현황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다이아몬드 단체인증제도

한국에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올바른 다이아몬드 그레이딩 문화 구축을 위한 활동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왔으며, 그 일환으로서 2016년 11월부터 「다이아몬드단체인증제도」가 발족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연마된 다이아몬드의 감정”에 관한 한국표준규격(KS D 2371)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다이아몬드 그레이딩 전체의 표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가 주재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원자재, 귀금속, 세공, 가공, 제조, 감별, 디자인 등 한국 주얼리산업과 관계한 10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컬러 그레이딩의 마스터스톤의 선정을 포함한 인증제도의 실무는 이 협의회 산하에 있는 다이아몬드감정 단체인증위원회가 발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단체인증제도의 적절한 관리·운영 활동의 일환으로서 2016년 9월에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회장 김종목, 다이아몬드감정 단체인증위원회 위원장 조기선,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소장 온현성,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선임연구원 이보현, 4명이 AGL을 방문하여 한 발 빠르게 실시된 일본의 마스터스톤 제도에 대해 시찰하였습니다.

한국의 다이아몬드 마스터스톤은 GIA 기준인 12개 스톤(E, F, G, H, I, J, K, L, M, N, S, Z)으로 준비되었으며, 그 원기는 SJC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단체인증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감별기관은 5개 회사로 참여기관의 그레이딩 레포트는 디자인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레포트를 보면 바로 인증제도의 레포트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증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판매업체는 10곳 이상으로 한국 주얼리산업의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